



MBC C&I 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사우회 가을철 동호회 행사 풍성한 이야기 남겼다

등산대회 10월23일 북한산 소나무 숲 둘레길 5km

최근 가장 많은 86명 참가, 고급 등산모자 선물

10/23(수) 북한산 둘레길에서 실시됐다. 오전 10:30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를 출발해서 제2구간 순례길을 먼저 걸은뒤 다시 제1구간 소나무숲길을 지나 우이동에 이르기까지 5Km를 걸었다. 최근 가장 많은 86명이 참가해 청명한 날씨속에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형진한(보도) 회원이 부인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나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 아쉬움을 남겼으며, 김해원(편제) 회원도 제2구간을 잘 걸은뒤 제1구간으로 접어드는 솔밭 공원에서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면서 걷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끝까지 함께 하기를 기원했던 일행들을 아쉽게 했다.

가을철 등산대회에 참가한 86명 가운데는 90대 회원이 1명, 80대가 4명, 70대가 53명, 그리고 60대 회원이 27명이었다. 사우회에서는 고급 등산모자 1개씩을 선물로 드렸다.

낙시대회 10월11일 김포 전류리 수로서 낙회 겸 가을대회
박태환 회원 1등 차지, 수심 얇아 끈들도 손맛 못봐
낙회를 겸한 가을철 낙시대회는 10월11일(금)에 김포 전류리 수로에서 실시됐다. 날씨는 쾌청했으나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리고 현장 답사뒤 1주일 사이에 물이 많이 빠져 수심이 60~80cm로 너무 얇아졌다는 우려섞인 이야기들이 끈들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다.

계척을 실시한 결과 박태환(관리)회원이 19.1cm짜리 붕어를 잡아, 2005년 가을철 낙시대회 이후 8년만에 1등을 차지했다. 송재선(업무)회원이 19cm, 백성원(관리)회원이 17.5cm짜리 붕어를 잡아 2,3등을 차지했다. 홍진표(관리)회원은 45cm짜리 메기를 잡아 행운상을 받았다. 이번 낙시대회에는 30여명이 참가했으나 월척은 물론 손맛을 본 회원이 1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조황이 좋지 않았다.

골프대회 9월27일 중원골프클럽서 가을철 친선대회

권태섭 회원 우승, 박병선 회원 근접상

9월27일(금) 충주 중원골프클럽에서 열린 가을철 회원 친선골프대회에서 권태섭(기술)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신페리어 방식을 적용해 우승자를 가린 이번대회에서 권회원은 80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이상진(보도) 회원이 1타 뒤진 81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2년만에 참가한 박병선(편제)회원은 홀컵에 99cm까지 붙여 근접상을 받으며 신고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꼴찌를 면한 행운상은 권오용(편제)회원에게, 감투상은 멀리 춘천에서 새벽같이 달려온 이명수(춘천)회원에게 주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7개팀 28명이 참가했으며, 사우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친환경 버섯 1세트씩을 선물로 드렸다.

바둑대회 11월6일 광화문 사우회 사무실
A조 신해명 회원, B조 정영수 회원이 우승차지
가을철 바둑대회가 11월6일(수) 사우회 사무실에서 실시돼, 신해명-정영수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A조 결승에서, 신해명(관리)회원이 권오룡(업무)회원에게 기권승을 거두고, 2006년 봄철대회 이후 7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B조 결승에서는 정영수(관리)회원이 이범수(업무)회원을 물리치고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42명이 대거 출전해 사상 유례없는 접전을 펼쳤다.

MBC C&I 전영배사장 바둑대회 특별선물 기증
이 날 바둑대회에는 전영배 MBC C&I 사장이 사우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특별선물 5세트를 기증했다. 선물은 남성용 넥타이와 여성용 스카프 1개씩 그리고 리처드 폴에반스(미국)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리스트' 1권이다. 사우회는 바둑클럽 발전에 기여한 노서를 고문 등 5명을 선정해 특별상으로 수여했다.

원로회원 산업시찰과 문화탐방기사 참관기 2면

사우회 2013년 송년의 밤

12월12일(목) 저녁 6시 마포가든호텔

결산의 계절, 사우회는 '송년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각 부문 친목단체도 송구영신 행사에 회원들을 초청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사우회 '2013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12일(목) 저녁 6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다.

MBC에서는 참석 회원 전원에게 2014년 다이어리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우회는 새로 제작한 2014년판 회원수첩을 나누어 준다.

부문별 연말연시모임

문미회(미술부) 11월23일 (토) 저녁 5:30 종로2가 31빌딩 하이마트뷔페

문비회(비상계회부) 12월1일 (일) 저녁 7:00,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 한정식집 산들해 양재점

기술동우회 12월3일 (화) 저녁 6:00 마포 M펠리스웨딩홀

회계인의 밤 12월4일 (수) 저녁 6:30 여의도 고려빌딩 3층 한야시생고기

초록회(여자ANN) 12월5일 (목) 12:00 여의도 중국식당 열빈. 현역 아나운서 중에서 올해 활약이 뛰어난 1명을 선발해 시상도 한다.

청죽회(시설부) 12월5일 (목) 저녁 7:00 종로2가 3·1빌딩 하이마트 뷔페. 올해 고회와 회갑을 지낸 회원들을 축하하는 특별코너도 마련된다.

인사동클럽(라디오PD) 12월12일 (목) 낮 12:30, 지하철 서초역 부근 한정식집 을돌목 가는길

문기회(보도국) 12월19일 (목) 저녁 6:30 여의도역 여의도종합상가 5층 신동양반점

문우회(차량부) 12월28일(토) 오후 4:00 종로2가 3·1빌딩 하이마트뷔페

문경회(업무-광고) 유일하게 신년행사 실시 1월16일 (목) 저녁 6:00 세종호텔 예정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I



그 시절 이야기

MBC청룡이 동지를 LG로 튼게된 사연

이 중 민 前 대전MBC사장

1989년, 나는 그 때 문화방송 종합 기획실장이었다. 어느 날 최창봉 사장이 불러 사장실에 갔더니 “동양극장을 사려면 얼마쯤 될까?” 하시는 것이었다. 며칠뒤에 “70억원쯤 된다”고 말씀드렸다. 예술에 조예가 깊으셨던 방송 문화진흥회 박용구 이사장과 뜻이 같았던 최사장께서는 동양극장(현재 문화일보 자리)을 매입해서 예술전용극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으신 듯 했다. 방송사로서는 해야 할 일이라 싶었다. 자금은 MBC청룡을 매각해서 마련할 생각이셨던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나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MBC청룡은수년 동안 관리 했으니 처분해도 좋을 듯 하나 동양극장은 낡아서 새로 짓지 않으면 관리가 곤란할 것이다.”고 말씀 드렸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 이라는 얘기였다. 최사장께서는 아무튼 “MBC청룡을 매각할 수 있겠나 알아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몇가지 주문이 있었다.

- 매각대금은 100억 이상이다.
- 야구단을 현행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
- 극비로 추진해라 등이었다.

나 혼자 하기엔 참으로 벅찬 일이었다. 극비로 추진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하늘의 도움을 청한다. 나도 두손 모아 조용히 능력을 주시사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기도 끝에 한 성구(聖句)가 떠올랐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

를 얻으리라.”-삼상 26:25-

맨 먼저 MBC 사장과 공보처 장관을 역임한 이용희 KBO 총재를 찾아 뵈었다. 그리고 최사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두분은 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났다. 얼마 후 KBO 총재로부터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장을 만나보라는 연락이 왔다. 그 자리에 이현태 실장과 김호일 부장이 나와 협상을 시작했다.

현대그룹은 야구단을 인수 할 의사는 있었는데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우리와 맞질 않았다. 현대는, 삼미 소유였던 청보 핀토스가 50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안다. 70억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무산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KBO 총재께서 이번에는 LG그룹 기획조정실장을 만나보라고 다시 연락을 주셨다. 이현출 이사와 김갑열 부장을 만났다. 이이사는 연세대학 출신이고 김부장은 고려대학 후배여서 그랬던지 만나자마자 친밀해 질 수 있었다. LG는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종합검토 한 끝에 야구단 인수를 결심한 듯 했다.

실무협상에서 본 협상으로 들어가며



MBC는 신정휴 전무, LG는 변규칠 사장으로 협상 대표가 바뀌었다. 두 분은 동향에다 같은 서울대학 출신이어서인지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LG는 100억을 제시했고 MBC는 130억을 요구했다. MBC는 8년간 야구단을 운영하며 124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본전은 뽑아야 할 금액이었다. 마침내 LG는 매각 대금으로 MBC가 제시한 130억원을 받아들여 매각은 성사되었다. 당시 구본무 부회장께서

“그 동안 MBC가 야구단을 잘 육성해 준 노고를 인정해 준다”며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매각이 확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자 맨 먼저 나한테 달려 온 것은 MBC 노조였다. 그러나 매각 경위를 듣고는 “뒷말 없게 잘 처리해 달라.”며 넘어갔다. 그런데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들을 설득 하는데는 곤욕을 치렀다. 뒷선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똥 바가지를 내가 모두 뒤집어 써야 했다. 진흥회 이사들도 직자를 보면서까지 야구단을 보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들이었는데 다만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것을 패썹하게 생각했



으나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에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룡을 혈값에 매각했으며 틀림없이 뒷돈을 받아 챙겼을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1982년 1월에 창단한 MBC청룡 야구단은 1990년 1월에 LG그룹으로 넘어갔다. 나는 한 때 청룡 야구단 단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단 매각의 서운함은 누구보다 컸었다. 마치 애지중지 키워온 딸

100억 이상 받고 매각토록 밀명 현대그룹, LG와 극비리에 접촉 130억원에 매각

혈값에 팔았다는 뒷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로 번져

을 시집 보내는 심정이랄까.. 그 마음을 LG 구부회장께 말씀 드렸더니 “명문구단을 만들어 보답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 분은 야구를 남달리 좋아했고 사랑했다. 그간 LG가 한국시리즈에서 두번 우승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야구에 대한 그분의 열정 때문이리라..

20년전에 있었던 이야기 쓰기를 끝내고 TV를 켜니 올시즌 페넌트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한 LG트윈즈 야구단이 오랫동안 가을야구를 즐기고 있었다. LG트윈즈여! 승전고를 우렁차게 울려다오.

원로회원 산업시찰 문화탐방 참가기

원로회원 산업시찰 10월 31일~11월 1일 월성원자력발전소 & 경주 일원 39년생~42년생 회원 37명 참가
올 원로회원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행사가 10월31일(목)과 11월1일(금) 이틀간에 걸쳐 대전 대덕연구단지과 경주, 월성, 감포항에서 실시됐다. ‘과학·문화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체험’을 주제로 실시된 올 산업시찰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협조로 실시됐다. 이번 산업시찰에는 그동안 한번도 산업시찰에 함께하지 못한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 원로회원 37명과 사무처 3명, 행사진행요원 2명 등 42명이 함께했다. 이우철 포항MBC 사장은 회원들이 머문 경주 콩코드 호텔로 찾아와 원로회원들의 오랜만의 지방 나들이를 위로했다.

사우들이 벽을 넘어 한바탕 어울린 가을나들이

장영배 前전주MBC사장

시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새벽 별이 총총한 정동 사우 회앞에 사우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40여명이었다. 가로등과 오가는 자동차 불빛에 옛 얼굴을 가늠하며 만남의 인사가 오갔다.

손 잡고 흐들면서 웃음으로 인사하고 가슴으로 반가워 했다. 사우회가 마련한 가을철 문화 탐방과 원자력 발전소 체험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경주 원전등에 둘러 원전의 기본과 안전문제를 알아보고, 경주지역의 문화유적을 둘러 보는, 실로 일거양득의 나들이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우리나라 원전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터라 뜻 있는 일정이란 생각이 들었다.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 판교를 지날무렵 불계 탄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차창 밖을 스치는 산과 들녘은 온통 농익은 가을 빛으로 눈이 부셨다. 대덕 연구단지에는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있었다. 원자력 안전 학교였다. 영상과 강의를 통해 원전의 기본과 안전의 핵심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강의에는 한남대 학군단 학생들도 참여해 이채로웠다. 일행은 추풍령을 넘어 세계 문화유산 경주 양동 마을을 찾았다. 조선 중기 시대 양반들의 종가와 전통가옥 150여채가 구름과 계곡을 따라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월성

손씨와 여주 이씨에 얽힌 이야기를 뒤로 하고 구름 정상에 올라서니 바로 앞 안강 들녘이 오후의 가을햇볕에 빨갛게 익고 있었다.

토함산 기슭에서 하루밤을 묵고 신라 3대사찰의 하나였다는 감은사(682년완공) 절 터를 찾아육종 장대한 3층 석탑(13.4m)을 올려다 보면서 흔적도없이 사라져버린 사찰의 웅장함을 머릿속에 가늠했다.

푸른 물결 출렁대는 동해에는 문무대왕이 우리를 반기는듯, 1300여년이 흐른 지금도 호국의 염원을 안은 채 잠들어 있었고,무심한 갈매기 때만이 울어대고 있었다. 이어서 이어진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방문,월성 원전은 모두 6기로 방대한 규모에 위치와 환경도 훌륭했다.

이처럼 훌륭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원전요원들이야말로 나라에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전은 우리 전력의 3분의1을 책임지는 에너지의 총아이지만 최후의 생명은 안전이다” “원전은 기술적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모두의 결론이었다. 이번 나들이는 좋은 가을에 문화와 원전을 보고 느끼면서, 현업시절의 부분별 벽을 넘는 ‘사우들의 한 바탕 어울림’이었다. 그 뒤에는 사우회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포항MBC가 있었다.

회원동정



이명세(관리)

봉사활동으로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이명세(파주시노인회장)회원이 10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회장은 2010년 4월에 파주시노인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파주시내 경로당 400군데와 500여명이 봉사하고 있는 실버경찰대를 잘 운영하고, 노인대학 4개반을 개설하여 600여명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통한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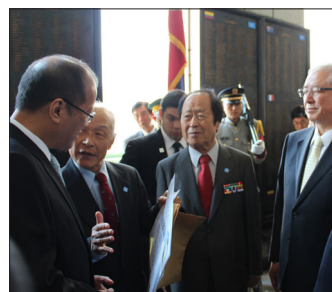


유희근(보도)

EBS “성공, 인생 후반전”에 출연

前전주MBC사장 EBS교육방송 “성공, 인생 후반전”(30분물, 방송 10월 2일)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또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세계서예비엔날레 대회 “사회저명인사 명작전시회”에 대형작품(不義富貴如浮雲)을 출품하고 한국의 서예대가 10인으로부터 작품 30여점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직업자(RCY)후원금으로 기부했다.



박기병(보도)

방한한 아키노 대통령에게 감사패 전달
前 前전주 MBC사장. 대한언론인회 한국전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국민 방문 중인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에게 그의 부친故 베니그노 아키노 2세 상원의원에게 증정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 아키노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군인 고 베니그노 아키노 2세 전 상원의원은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자 ‘마닐라 타임즈’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돼 한국전 전황을 전세계에 알리는 중군기자로 활약했다.

